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4, 마가복음 1:40-2:17: 공적 사역은 계속됩니다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마가복음 1:40-2:17: 공적 사역은 계속됩니다.

좋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을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우리의 주의를 예수님의 권위에 집중시켰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심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부르셨고 그들은 즉시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즉시 순종했던 엑소시즘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에서도,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가 어떻게 병에 걸렸다가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위대한 날, 그것이 실제로 1장의 초점이었다, 우리는 마가 복음의 서사를 제대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계속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제시된 주제, 즉 예수가 더 강하고 권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우리를 주로 처음 여덟 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힌지, 이 스위치를 볼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를 죽을 분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2장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1장 마지막에 가버나움에서의 하루,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고치신 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께서 1장의 40~45절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나병환자가 그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심으로 가득 차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만졌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깨끗해지십시오.

그러자 즉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나았다. 예수께서는 즉시 그를 보내시며 강한 경고를 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네 정결함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 그들에게 증거하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자유롭게 말하며 소식을 퍼뜨렸다 .

그 결과, 예수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외딴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사방에서 그에게 왔습니다. 따라서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처음부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성경 시대의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살이 죽거나 썩거나 어떤 종류의 썩음이 생기는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는 것 중 하나는 나병이 거의 살아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살아 있어도 죽음의 징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2성전 유대교에서 죽음은 불순한 상태였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의식적으로 자신을 정화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만지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죽음은 그 불순함과 함께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구약에서 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둘러싼 구전법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병환자는 정의상 의식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의

나병환자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가족과 친구와 분리되고 사회적 상호 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공동체 밖에서 거의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레위기 13장과 민수기 5장, 그리고 그에 대한 구전 전통을 통해 나병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 시작하면 자신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상태를 선언함으로써 도착을 알려야 했습니다.

질병 자체뿐만 아니라 발생했을 사회적 외로움을 생각해보면 매우 끔찍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법의 아이디어는 거룩함과 불결함, 깨끗함과 더러움이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불결함이든 불순함이든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무언가와 접촉하면 더럽습니다. 더럽혀진 부분이 이제 깨끗했던 곳으로 옮겨가서 더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다는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병이 치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일들이 몇 가지 나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사람이 예수께 다가가서 말하고 간청한 것은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기대되는 행동, 즉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런 식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과는 상반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하고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즉, 예수께 다가가는 위대한 행동에는 종종 믿음의 운동적 표현, 즉 근육질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절 40에서 주의하세요,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유대인의 의례법에 따라 자신이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리스어에는 if-then 문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구조화되는 방식 중 하나는 '만약' 부분입니다. 즉,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즉, 그가 기꺼이 하신다면, 결과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가 읽는 방식은 마치 당신이 이것을 할 의향이 있다면, 결과는 확실하다는 것처럼 if-then 문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예수께서 그것을 하실지 말지 선택하실지입니다.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말지? 제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예수께서 그를 깨끗이 하실지, 당신이 원한다면 그를 온전하게 하실지 선택하실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은, 제 생각에, 매혹적이고,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 남자를 만졌습니다. 그의 손을 내밀어 그 남자를 만지는 것이 기적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는 이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가 복음을 살펴보면서 보게 될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적을 행하기로 선택한 방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 복음에서 예수님이 멀리서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가 치유하기 위해 항상 만질 필요가 없다는 것, 그의 힘은 말할 수 있다는 것, 폭풍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 또는 그가 그저 말할 수만 있어도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엑소시즘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나병 환자에게 간단히 “나는 깨끗해질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예수님은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몇 가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 그것은 다시 한번 부드러움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고, 그는 이 남자를 만졌습니다. 이 남자가 다른 사람의 부드러운 손길을 실제로 느낀 지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하지만 또한, 불순함이 전염성이 있다는 우리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더럽고 깨끗한 것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것이 더럽고 만질 때, 음, 더럽다는 것이 더 강한 힘이었습니다. 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본 생각으로 돌아가서, 그 반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룩함과 불결함은 섞이지 않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섞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의 거룩함, 깨끗함, 말하자면 순수함이 전염성 있는 요소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와 접촉함으로써 깨끗해졌는데, 그 문화권에서 기대했던 바는 예수가 나병 환자를 만져서 더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손을 내밀어 기꺼이 하겠다고 확언하며 깨끗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본 것을 봅니다. 말하는 이 아이디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즉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났고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흥미롭게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지시를 내리셨는데, 사실 그것은 매우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보세요, 당신은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더 이상 살아 있는 썩은 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그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희생을 바쳐 그들을 증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당시의 관행에서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그들은 스스로 의식을 행하거나 적어도 그 개인이 더 이상 부정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그에게, 나병 환자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하고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규정된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서 자신이 더 이상 살아있는 죽음의 흔적을 지니고 있지 않고, 이제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자체에 대한 증거라기보다는 나병환자가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증거로요.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예수님은 침묵하거나 미루거나 항상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즉시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했고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치유가 있고 그렇게 강력한 방식으로 일어난 후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불순종의 행위라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는 더 이상 마을에 공개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에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지만, 예수의 말씀으로 즉시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항상 자신의 명성이 퍼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억제하거나 통제하거나 지시하려고 했던 동기 중 하나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의 능력 중 일부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말했듯이, 그 결과 예수님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고 밖에 계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나병환자를 살펴보는 데 조금만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게 될 몇 가지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하시는 능력을 계속 이어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한 구약 공동체의 순수함과 불순함, 의식적 율법, 그리고 예수님과 순수함과 불순함의 관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찾을 몇 가지 것들에 대한 무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좋아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기적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1절에서 12절까지 마비된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저는 1절로 여기를 마치겠습니다. 며칠 후,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그래서 그는 돌아왔고, 사람들은 그가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밖에도 자리가 없었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마비 환자를 데려왔는데, 네 사람이 그를 메고 왔습니다. 군중 때문에 그를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위의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것을 파고, 마비 환자가 누워 있는 자리를 내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자 율법 선생들이 앉아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는 일어나서, 그의 자리를 가지고,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걸어나갔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있을 것이지만, 여기가 그가 머물렀던 집인 듯합니다. 예상대로 그가 집에 갔다는 소문이 퍼져서, 우리는 이 군중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다시 주목합니다. 우리는 마크가 가르침과 기적, 가르침과 엑소시즘, 치유와 엑소시즘을 엮어내는 것을 계속 봅니다. 우리는 가르침, 치유, 엑소시즘이라는 세 가지 큰 것이 엮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엮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지난번에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이 집에서,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은 그를 데려왔고, 어떤 종류의 질병을 앓거나 악령에게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데려왔고, 그는 많은, 많은 일을 하였고, 그러고 나서 그는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그들은 여전히 집 주변에 몰려 있지만,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마가 복음에서 군중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을 막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끊임없이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동안, 우리는 다시 근육질의 믿음의 예를 봅니다. 여기 이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걸을 수 없는 마비 환자를 매트에 눕혀서 옮기고 있는데, 문 앞에 군중이 많아서 이 집으로 들어갈 다른 길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들 바깥쪽에는 계단이 있었고, 그들은 그

계단을 올라가서 그 남자를 예수님께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붕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남자를 생각하고 주목하는 것은, 그것은 네 남자의 행동이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볼 것입니다. 마비 환자는 이 시점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마도 그는 이것을 격려했고 이것을 지지했으며 예수에게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네 사람이고, 그들은 심지어 재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파고 있는데, 파는 것은 옳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지붕은 추가로 만든 재료였을 테고, 그래서 지붕을 열려면 말 그대로 구멍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지붕을 내립니다. 팔레스타인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지붕을 파고 그 남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5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 때, 즉 그는 전체 무리,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뢰,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 장애물을 피하려는 그들의 의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마비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는 마비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비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이 염려한 것은 걸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불순함과 관련된 피부병을 앓았던 나병환자를 보았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의 죄에 대해 진술하신 마비된 사람을 봅니다.

저는 이 진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매우 의도적으로 행동하신다는 우리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라고 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할까요? 글썄요, 물론, 제2성전 유대교 시대에는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화나게 한 어떤 일이 있어서 특정한 방식으로 타격을 받게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이해해서 그런 종류의 연결을 만들고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아마 그걸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정확히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정한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남자의 신체적 상태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세요.

그것은 지금 그에게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특정한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마비된 사람이 무언가를 했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마비시켰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종류의 신체적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세상이 좋았을 때,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의 범법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죽음과 세상의 쇠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 마비는 오늘 제가 여기서 앓고 있는 기침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일어난 특정한 심판의 죄의 결과인, 누구의 병이든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타락의 증상, 예를 들어 질병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의 원인, 즉 죄의 문제 전반을 치유할 수 있으며, 증상만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죄, 아들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환상적인 상호 작용이지만 매우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거기에는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 있습니다. 법학 교사들은 좋은 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은 듯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입장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고, 사람들은 길을 비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앉아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이 시점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들아, 네 죄는 용서받았다.

당연히 그들은 이에 대해 매우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진술이 그의 특권을 벗어난 무언가를 선언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죄의 용서에 대한 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속죄나 희생도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희생이 율법에 따라 행해졌기 때문에 죄가 속죄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요? 그는 저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말할까요?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신 것에 놀랐던 같은 마을의 맥락에서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서기관들이 결코 하지 않을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예수께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영으로 즉시 아셨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서 얻은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속의 긴장감은, 예수가 신성모독인가? 예수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는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오직 신만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 제도도 신이 그 제사 제도를 지시하셨고, 누군가가 이 제도, 속죄일 등을 따르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항상 신이 디자인한 의식이었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 속에 이런 긴장감을 느낍니다. 예수는 오직 신만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정말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마가는 예수가 그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한 진술처럼,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기도 전에, 마가는 그 진술이 효과적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실제로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마비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가요, 아니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가요? 저는 그 질문이 조금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할 때 기대하는 것처럼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의 현실을 반드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본질적으로 둘 다 불가능성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를 다른 하나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마비 환자에게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을 죄 사함에 대한 그의 진술과 연결시킵니다. 그는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비 환자에게 일어날 일은 실제로 증거이며, 내적 변화에 대한 시각적 묘사입니다.

그는 그들을 연결하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서 매트를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여기 마비된 사람이 있고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마비된 사람의 치유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것과 같습니다. 과정이 없습니다. 그는 약간 서투른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완전히 위축되었을 것이고, 근육 활동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서 매트를 집어 올리고 집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온 힘을 다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림이 됩니다.

기적은 진술을 이루며, 당신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비된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은 이 위대한 행위를 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그것을 한 것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는 그 순간을 이용하여 치유할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의 권위를 놀랍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연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선언에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완전한 선언입니다.

이 남자가 이제 완전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매트를 들고,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을 합니까?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한 말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야? 악령들조차도 그에게 복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고, 차이가 있어. 알다시피, 예수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내서 다른 인물들과 비슷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지.

마가복음에서 군중이 큰 차이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들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런 놀랍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지만, 약간의 긴장감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병환자가 있는데, 씨족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 주러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신성모독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께서 그들이 앉아 있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시며,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권위의 한가운데서 점점 커지는 긴장을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와 종교 편집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관계의 점점 커지는 긴장을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레위의 부름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는 호수 옆으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에게 왔고, 그는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걸어가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리의 부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레위가 일어나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저녁을 드시는 동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인 율법 학자들이 그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두 개의 별개의 이야기를 함께 엮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레비의 부름이고, 두 번째는 레비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마도 왜 두 이야기가 함께 엮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레비는 두 이야기에서 모두 같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둘을 매우 분명하게 섞습니다. 이제, 충분히 흥미로운 점은 제자를 위한 레위라는 이름이 여기와 누가복음 5:27-32에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알패오의 아들에 대한 언급은 마가가 실제로 매우 구체적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 목록을 살펴보면,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레위는 누가의 12제자 목록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는 언급되었습니다. 마태는 레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를 언급하기 직전에 마태를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같은 인물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9장은 레위의 이야기를 마태의 부름 이야기로 제시하는데,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레위와 마태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출처라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이 동일한 사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두 개 이상의 이름을 가진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 예수가 부른 첫 두 제자 집단은 두 쌍의 형제, 즉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따라서 레위와 야고보는 알패오의 두 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두 쌍의 형제를 합치고 있으며, 누가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레위를 이 인물로 둔다면,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마태로도 알려진 레위의 부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도시 근처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두 지역 경계에 앉아 있는 통행료 징수원인지, 도시에 사는 세금 징수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유형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기 있을 겁니다. 소득세를 징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표현을 보면 어떤 종류의 세관 공무원일 가능성이 큼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품을 시장에 들여오고 싶다면, 당신은 도시로 들여오기 위해 세관 직원에게 통행료를 내야 했고, 그런 다음 이 사람들은, 그들의 컬렉션 중 일부는,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견과류가 있었고, 그들은 개입할 로마 관리들에게 다가가야 했고, 그런 다음 그들이 모은 다른 것은 모두 자신의 수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멸시받는 개인이었고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탈무드는 세리들을 살인자와 도둑으로 분류하여 사람들에게 가한 해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그들은 빚진 것에 더하여 추가로 청구한 금액으로 한계를 정했습니다. 지금은 종종 입찰을 통해 이 직업을 얻습니다.

인맥을 쌓거나 더 많이 얻거나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 당국, 로마인, 아마도 여기에서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이 직위를 얻었다면, 레위가 왜 그렇게 멸시받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버나움에 있다면, 그는 어업 산업에서 세금 징수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이먼과 앤드류,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은 낚시에 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집은 사이먼에게 친숙한 집입니다.

그들이 생선을 시장에 내놓을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고, Levi 자신이 아니라면 Levi와 같은 인물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인물은 Simon, Andrew, James, John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 정말 좋은 인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세요. 나를 따르라. 다른 제자들의 부름과 똑같은 단어로 표시하세요.

레비는 확연히 다른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는 같은 전화를 받고, 같은 요약, 나를 따라와, 같은 응답을 받는다. 레비는 일어나 그를 따라갔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 배를 버리고 그를 따랐던 것처럼, 레위도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 일어나 그를 따랐습니다. 이제,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주지 않지만, 마가가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마가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레위의 부름이나 레위의 반응에 다른 사람들의 부름과 반응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 후에 우리는 연회를 갖습니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저녁을 드십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흥미로운 것은 제 번역에서 죄인들을 따옴표로 묶었는데, 그분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레위가 준비한 연회가 있는데,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축하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쁜 사람들과 연회를

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로마 스타일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인식되고 있는 식사 관행의 일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들과 연회를 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 세리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배열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세리와 죄인이라는 그 진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은 세리와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방식일 뿐일까요? 아니면 더 구체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세리의 언어와 강조하는 방식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한 옵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방에 세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 범주를 주목할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멸시받는 것으로 여겨졌는지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너무 많아서 주목할 가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선택지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제가 자주 가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세금, 여기서 세리라는 용어는 강조함으로써 죄인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리의 직업은 정의상 최악적인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강탈하고, 알다시피, 약간의 강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했다고 가정해 보면, 이방인 통치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유대인 통치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든, 누군가를 세리라고 부르면, 그들의 직업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번역에서 따옴표로 표시된 이 죄인 집단은, 제 생각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죄인 집단은 그들의 직업에 따라 죄인으로 간주되었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해치기 위해 돈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매춘부는 또 다른 예가 될 것입니다.

이 모임에는 세리, 수다쟁이, 거짓말쟁이, 중상모략가가 아닌 세리, 그리고 그 문화권에서 정의상 당신을 죄인으로 만든 다른 직업을 나열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집단이 바로 그들이죠. 그저 생각하는 방식 중 하나일 뿐이지만, 여기에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고, 저는 우리가 식사 교제, 식탁 교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식탁 교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식사에서의 순수함과 불순함에 대한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탁 교제가 명예와 수치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는 당신의 가치, 당신의 가치, 당신의 명예, 또는 반대로 당신의 수치, 당신의 비천함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는 더럽고 그의 상태는 예수와 함께 있을 때까지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예수의 순수함은 더 강했습니다.

식탁 교제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와 함께 먹는지에 대한 사회적 지위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문화권에서 더 낮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먹는다면, 당신의 명예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럽혀진 사람들과 함께 먹는다면, 당신의 순수성 상태가 도전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수에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예수가 그 문화권에서 피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나병환자에게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을 순수함과 불순함의 측면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았고, 이 도전은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도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상호 작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에게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이유를 묻거나, 예수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종류의 간접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물론, 함축된 의미는 항상 같습니다. 한 쪽이 틀렸고 잠재적으로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제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이런 조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당신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분명 이게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분명 그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그는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흔한 속담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인용하신 이 속담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는 이런 유형의 진술에 대한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병을 앓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회복하려면 병을 앓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장하면 정의상 법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하며, 특정 구역 조항을 폐지하거나 초월해야 할 수도 있고, 이를 둘러싼 구전 전통을 폐지하거나 초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 잃어버린 자, 부도덕한 사람들을 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병자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분도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농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판의 전체적인 암시는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죄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부의 암시나 미묘한 아이러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챗터 2에서 진행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챗터 2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물은 Simon, Andrew, James, John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모집해야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하지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세요. 마크는 다른 제자들의 부름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레위는 뚜렷하게 다른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같은 부름, 같은 요약, 나를 따르라, 그리고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레위는 일어나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를 따르라를 듣고 배를 떠나 그를 따랐던 것처럼, 레위는 나를 따르라를 듣고 일어나 그를 따랐습니다.

이제, 어떤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레위의 부름이나 레위의 반응에 다른 사람들의 부름과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름 이후에 우리는 연회를 갖습니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저녁을 드십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흥미로운 점은 제 번역에서 죄인들을 따옴표로 묶었는데, 그분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레위가 준비한 연회가 있는데,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축하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쁜 사람들과 연회를 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로마 스타일의 식사를 하며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인식되고 있는 식사 관행의 일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들과 연회를 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 세리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배열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세리와 죄인이라는 그 진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은 세리와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방식일 뿐일까요? 아니면 더 구체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세리의 언어와 강조하는 방식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한 옵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방에 세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 범주를 주목할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멸시받는 것으로 여겨졌는지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너무 많아서 주목할 가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선택지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제가 자주 가는 곳이지만, 여기서 세리라는 용어는 강조함으로써 죄인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리의 직업은 정의상 최악적인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강탈했습니다. 약간의 강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 통치자들의 이익이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유대인 통치자들의 이익을 위해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세리라고 부르면, 그 정의에 따라 그들의 직업 때문에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번역에서 따옴표로 묶인 이 죄인 집단은, 제 생각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죄인 집단은 직업의 정의에 따라 죄인으로 여겨졌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해치기 위해 돈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매춘부는 이 모임에서 우리가 가진 또 다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세리와 수다쟁이와 거짓말쟁이와 중상모략가가 아니라 세리와 그 문화에서 당신을 정의상 죄인으로 만든 다른 직업을 나열합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지만, 여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식사 교제, 식탁 교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식탁 교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반복해서 보게 될 순수함과 불순함의 개념은 명예와 수치를 전달하는 교제에서 나타났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었는가는 당신의 가치, 당신의 가치, 당신의 명예, 또는 반대로 당신의 수치, 당신의 비천함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나병환자는 더러웠고, 그의 상태는 예수와 함께 있을 때까지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예수의 순수함이 더 강했습니다. 식탁 교제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와 함께 먹는지에 대한 사회적 지위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권에서 더 낮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먹는다면, 당신의 명예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당신의 순수성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수에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의 관점에서 그 문화권에서 예수를 피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는 나병환자와 함께 순수성과 불순함의 측면에서 비슷한 일을 사회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전을 가지고 있고, 이 도전은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도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예수,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상호 작용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질문하지만 제자들이 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지, 또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지 묻습니다. 이런 종류의 간접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물론, 함축된 의미는 항상 한쪽이 잘못되었고 잠재적으로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제자들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이런 조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당신은 분명히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분명 그는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그는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다. 이것은 여기서 흔한 속담이 아니다. 예수께서 인용하신 이 속담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고대 세계에는 이런 유형의 진술에 대한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병을 앓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회복하려면 병을 앓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장하면 정의상 법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구약성경 조항이나, 그에 대한 구전 전통을 폐지하거나 초월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거기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 잃어버린 자, 부도덕한 사람들을 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의사가 병자들 사이에 있어야 하는 곳과 마찬가지로, 그는 또한 있고, 심지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농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판의 전체적인 암시는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 죄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부의 힌트나 미묘한 아이러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2장을 계속 작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마가복음 1:40-2:17: 공적 사역은 계속됩니다.